

대학생들이 지각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강재희(康在希)** · 서영석(徐永錫)***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각 변수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7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밝혀졌다. 이 모형을 토대로 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고통(우울, 불안)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그리고 소극적 대처는 심리적 고통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심리적 고통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애착이론과 상담실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어 : 대학생,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심리적 고통

* 본 연구는 강재희(2006)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교신저자)

I. 서론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이후의 발달과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업, 진로 및 취업,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건강, 성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민경환, 곽금주, 박세란, 2004; 이기학, 이경아, 유나현, 2007; 이수현,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40%가 넘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박상학, 조용래, 1996), 대학생들의 26.8%가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경, 2003). 실제로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호소하는 문제 또한 복잡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우울 및 불안 등이 대학내에 널리 퍼져있고 대학생활 적응 및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리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 중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일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재차 확인할 뿐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과정상의 변인들을 파악하여 상담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매개변인들의 존재 및 그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서적응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 대학생들의 주요 발달과제를 자율성발달과 개별화로 가정했다(Arnstein, 1980). 즉, 견고하고 건강한 자의식을 지닌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자질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나 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유일한 변수라는 주장이 비판을 받게 되었고(Kenny, 1990),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심리적 독립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지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발달과 적응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e.g., Grotevant, 1989).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이 분리·개별화보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e.g., Larose & Boivin, 1998;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Vivona, 2000).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대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Vivona, 2000),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vell, Jones, Runyan, Constantin-Page, & Valasquez, 1993; Vivona,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게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낭만적인 관계가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Furman & Buhrmester, 1992) 낭만적인 관계에서 상호의존성과 친밀함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Laursen & Williams, 1997),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대학생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임을 시사한다(Ainsworth, 1989).

한편, 발달상의 심리적 병리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애착 및 부모양육행동에 결합이 있을 경우, 감정 및 행동을 조절하는 청소년의 능력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심리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e.g.,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이것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신건강 사이에 자녀의 감정 및 행동 조절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결국 이러한 변수들이 정신건강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비록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 지속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어떤 심리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상담자들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련 현장에서 강조하고 교육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면하고 상담해야 하는 상담자들에게는 중점을 두고 개입해야 하는 내담자의 개인내적 변수들을 확인하는 일 또한 상담실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어떤 심리과정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적응 또는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적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영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모양육행동 및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지칭하는데(Rosenberg, 1965), 애착이론에서 중시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부모양육행동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은 관계에 대한 인지-정서적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후에 맺게 될 관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Parkes & Stevenson-Hinde, 1982). 내적 작동모델의 내용이 주로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로운 존재로 여기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타인이 얼마나 수용해주고 반응해 주는가와 관련된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속에는 이미 자아존중감의 내용 및 그 기초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애착이론가들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스스로를 사랑스럽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킨다고 주장한다

(Fonagy & Target, 1997; Laible & Thompson, 2000; Sroufe, 2002). 또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강희경, 2002; 남순현, 임소영, 2006; 박경리, 김경연, 2001; Newman & Newman, 1995). 특히, 부모가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자율권을 허용하고, 통제와 허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숙, 1999; Hammer & Turner, 1990).

한편,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다면 개인의 내적작동모델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관계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실망을 개인적인 실패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결국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Kenny & Rice, 1995). 이는 내적작동모델의 내용 및 유형에 따라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내적작동모델의 주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그 수준에 따라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g., 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Corning, 2002),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우울(김미례, 2007; 김현정, 손정락, 2006), 불안(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다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의 내적작동모델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고통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대처전략이 적응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대처는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거나 부담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들을 관리하려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따라서 대처는 개인이 사건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하나의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많았고(Dempsey, 2002),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할수록 좀 더 건강한 행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iu, 2001).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처방식에 따라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다를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대처방식에서 심리적 고통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자신의 통제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azarus, 1990). 즉,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내외적 사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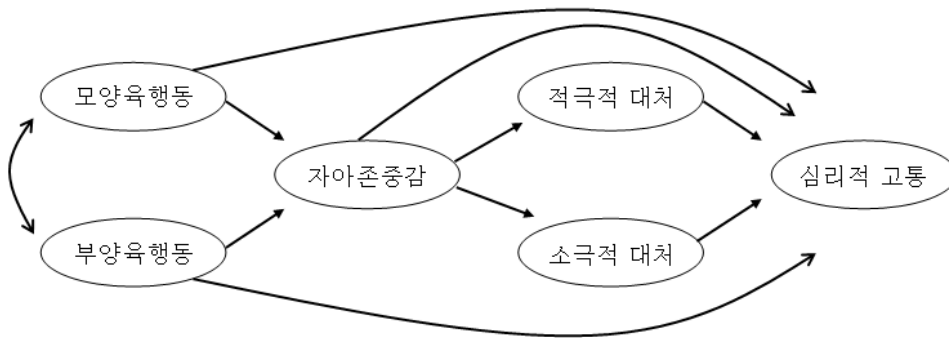
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 또한 어떤 대처전략을 채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양호, 김완일, 2006). 이렇듯, 상황통제 능력과 관련된 자기개념이 대처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즉, 자아존중감이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대처전략은 다시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모양육행동 및 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시도되어왔고, 개념상으로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논의된 바 있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예를 들어, 어머니와의 애착(Hoffman, Ushipz, & Levy-Shiff, 1988) 또는 아버지와의 애착(LeCroy, 1988)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두 부모와의 애착이 비슷한 정도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Arbona & Power, 2003; Noom, Dekovic, & Meeus, 1999; Paterson, Pryor, & Field, 1995). 또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 혹은 두 부모 모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청소년기의 품행장애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ant et al., 2000; Marcus & Betzer, 1996).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또한 보고된 바 있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Brack, Gay, & Matheny, 1993; Schultheiss & Blustei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리해서 어느 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대처 및 심리적 고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과 내재화된 심리적 고통(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 간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즉,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Mattanah et al., 2004; Vivona, 2000)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강희경, 2002; 남순현, 임소영, 2006; 박경리, 김경연, 2001; Newman & Newman, 1995), 자아존중감은 대처방식(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Lazarus, 1990)과 심리적 고통(김미례, 2007; 김현정, 손정락, 2006; 조선영 외, 2005; 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Corning, 2002)에 영향을 미치고, 대처는 심리적 고통(이은희, 2004; Dempsey, 2002; Lee & Liu, 2001)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설

정하였다(그림 1). 특히, 부모양육태도가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한 데에는 선행연구결과가 그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보호와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개인의 내적 작동모형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Bartholomew, 1990; Kenny & Rice, 1995)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자존감 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드러난다면, 상담자의 치료적 중재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목표 및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이 지각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긍정적인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가설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K대학, S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수강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80명을 설문조사하여 이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한 270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8세에서 36세까지 분포하였고($M = 20.49$, $SD = 2.22$), 남학생 111명(41.1%), 여학생 159명(58.9%)

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1학년은 149명(55.2%), 2학년 81명(30.0%), 3학년 19명(7.0%), 4학년 15명(5.6%), 대학원생 6명(2.2%)이었다.

설문 조사는 사전에 해당 수업의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강의가 끝난 뒤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문항을 제외한 설문의 총 문항 수는 166문항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설문지와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1) 긍정적인 부모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주고받는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 또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성을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Allen & Land, 1999; Holmbeck, Paikoff, & Brooks-Gunn, 1995; Steinberg, 1990).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중승(1982)이 개발한 '양육태도 진단검사'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4개 차원(애정, 자율, 성취, 합리)으로 나누어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나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성취적 양육태도'는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끈기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양육태도'는 매사에 이유를 중요시하며, 자녀에게 일의 동기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따로 측정하였다. 잠재변수인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Marsh(1993)의 제안에 따라 해당 관측변수 오차항 간에 상관을 허용하였다(예, 부애정↔모애

정).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부양육태도 .77-.88, 모양육태도 .74-.85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했다. 참여자들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동의하지 않음, 4점 = 매우 동의함) 상에서 10개의 문항에 반응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내적합치도는 .70대에서 .80 중반대의 범위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Wylie, 1989),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합치도는 .82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낙관성 및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구성개념 타당도가 확인되었다(Greenberger, Chen, Dmitrieva, & Farruggia, 2003). 또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지표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Fischer & Shaw, 1999).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김희수(2000)가 상담전공 대학원생들과 내용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27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처럼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고 있다. 적극적 대처는 외부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타인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지칭한다. 반면, 소극적 대처는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타협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스트레스원을 잊으려 한다거나 더 좋은 상황을 상상 또는 소망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적극적 대처 13문항, 소극적 대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자주 그렇다)로 평정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더 많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적극적 대처 .75, 소극적 대처 .61, 전체 문항 .77로 나타났다.

4) 심리적 고통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 표준화한 간이정신검사지(Symptom Checklist-90-Revised; Derogatis, 1983)를 이훈구(1986)가 요인 분석하여 다시 제작한 4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간이정신검사지는 9개의 하위척도(우울, 강박적 성향, 대인예민성,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신체화, 정신증) 상의 증상들을 평가한다. 응답자는 5점 척도(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 증상들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표본이 아닌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심리적 고통을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처럼, 9개 하위척도 중 우울과 불안만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였다.

우울과 불안 하위척도는 MMPI-2의 해당 척도와 상관을 보임으로써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고(Roper, Ben-Porath, & Butcher, 1995), 문항 내적합치도는 각각 .91과 .85로 나타났다(Fischer & Good, 2004). 본 연구에서의 우울과 불안 하위척도의 문항 내적합치도는 모두 .88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권유에 따라, 우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의도한 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매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AMOS 5(Arbuckle, 2003)를 사용했으며, chi-square 값뿐만 아니라 CFI, TLI, RMSEA를 기초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CFI와 TLI는 0.90보다 클 때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며(Ullman, 1996), RMSEA는 .05보다 작을 때 매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06과 .08 사이에 위치할 때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1. 문항꾸러미(item parcels)

본 연구에서는 Russe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부모양육행동과 심리적 고통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변수들(자아존중감,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관측변수(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문항 꾸러미를 제작한 이유는 SEM 분석에서 최대우도법 사용을 위한 가정들(예, 다변량 정규분포)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과 개별 문항

들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정모수의 증가를 막아 결국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Russel et al., 1998). 문항꾸러미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관련 꾸러미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같은 정도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Russell et al., 1998). 즉, 각각의 잠재변수가 1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고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 크기별로 순서를 매기고, 큰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과 작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을 짝을 지어, 꾸러미들의 평균 요인부하량을 같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19개 관측변수 간 상관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1 | - | .40 | .76 | .77 | .62 | .35 | .56 | .62 | .25 | .23 | .25 | .14 | .13 | .12 | .09 | .19 | .14 | -.16 | -.22 |
| 2 | | - | .44 | .49 | .38 | .66 | .37 | .40 | .21 | .24 | .24 | .12 | .08 | .11 | .05 | .07 | .11 | -.25 | -.27 |
| 3 | | | - | .67 | .53 | .40 | .65 | .56 | .26 | .24 | .27 | .24 | .17 | .24 | .12 | .16 | .20 | -.18 | -.19 |
| 4 | | | | - | .50 | .39 | .45 | .65 | .22 | .18 | .22 | .10 | .11 | .10 | -.03 | .06 | .07 | -.23 | -.31 |
| 5 | | | | | - | .48 | .75 | .76 | .32 | .28 | .25 | .19 | .07 | .12 | .11 | .13 | .16 | -.16 | -.29 |
| 6 | | | | | | - | .45 | .52 | .18 | .22 | .19 | .13 | .08 | .05 | .03 | .08 | .09 | -.18 | -.20 |
| 7 | | | | | | | - | .68 | .34 | .27 | .26 | .28 | .14 | .17 | .10 | .14 | .16 | -.15 | -.15 |
| 8 | | | | | | | | - | .24 | .23 | .24 | .15 | .08 | .12 | .04 | .08 | .13 | -.23 | -.28 |
| 9 | | | | | | | | | - | .62 | .62 | .25 | .15 | .15 | -.00 | .09 | .19 | -.45 | -.41 |
| 10 | | | | | | | | | | - | .68 | .22 | .11 | .19 | -.01 | .08 | .23 | -.44 | -.38 |
| 11 | | | | | | | | | | | - | .27 | .13 | .14 | -.06 | .01 | .21 | -.46 | -.44 |
| 12 | | | | | | | | | | | | - | .60 | .58 | .27 | .35 | .36 | -.14 | -.13 |
| 13 | | | | | | | | | | | | | - | .47 | .17 | .27 | .20 | -.13 | -.06 |
| 14 | | | | | | | | | | | | | | - | .22 | .21 | .30 | -.04 | -.06 |
| 15 | | | | | | | | | | | | | | | - | .46 | .35 | .08 | .09 |
| 16 | | | | | | | | | | | | | | | | - | .43 | .09 | .11 |
| 17 | | | | | | | | | | | | | | | | | - | -.11 | -.18 |
| 18 | | | | | | | | | | | | | | | | | | - | .74 |
| 19 | | | | | | | | | | | | | | | | | | | - |
| M | 60.0 | 53.9 | 55.9 | 56.0 | 56.4 | 54.5 | 56.5 | 55.7 | 9.6 | 8.6 | 9.0 | 10.4 | 7.2 | 8.7 | 7.5 | 8.9 | 5.8 | 10.9 | 10.7 |
| SD | 7.0 | 8.0 | 6.4 | 6.7 | 8.9 | 8.5 | 7.2 | 7.6 | 1.6 | 1.6 | 1.5 | 2.2 | 1.8 | 1.7 | 1.8 | 1.6 | 1.2 | 4.2 | 4.8 |

주. N = 270. 1-4는 모양육행동 하위요인들로, 1 = 모애정; 2 = 모자율; 3 = 모성취; 4 = 모합리. 5-8은 부양육행동 하위요인들로, 5 = 부애정; 6 = 부자율; 7 = 부성취; 8 = 부합리. 9-11은 자아존중감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이며, 12-14는 적극적 대처를 3개의 문항꾸러미로, 15-17은 소극적 대처를 3개의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이다. 18-19는 정신건강 하위요인들로서 18 = 우울; 19 = 불안.

상관 계수 $|r| \geq .12, p < .05$; $|r| \geq .16, p < .01$.

2. 측정모형 검증

제작한 문항꾸러미를 토대로, 관측변수들이 의도한 대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변수들의 왜도값과 첨도값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고(Finch & West, 1997), 이러한 가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mos 5.0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록 chi-square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3, N = 270) = 201.88, p < .001$; CFI = .97; TLI = .97; RMSEA = .044(90% CI = .031-.056). 또한, 모든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에 유의하게($p < .001$)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관측변수들의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Z-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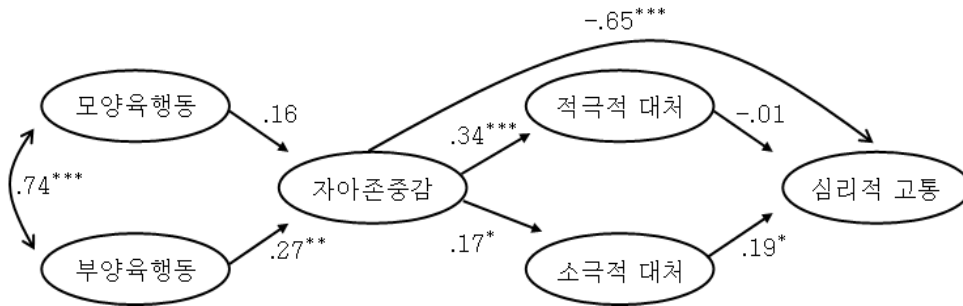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관측변수 |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 표준오차 (SE) | Z |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
|---------------|---------------|--------------|-------|---------------|
| 모양육행동 | | | | |
| 모합리 | 1.00 | | | .83*** |
| 모성취 | 0.97 | 0.06 | 16.36 | .83*** |
| 모자율 | 0.70 | 0.08 | 8.71 | .48*** |
| 모애정 | 1.16 | 0.06 | 18.23 | .91*** |
| 부양육행동 | | | | |
| 부합리 | 1.00 | | | .86*** |
| 부성취 | 0.89 | 0.05 | 16.81 | .82*** |
| 부자율 | 0.66 | 0.07 | 9.72 | .52*** |
| 부애정 | 1.21 | 0.07 | 18.67 | .90*** |
| 자존감 | | | | |
| 자존감꾸러미 1 | 1.00 | | | .76*** |
| 자존감꾸러미 2 | 1.06 | 0.08 | 12.71 | .81*** |
| 자존감꾸러미 3 | 1.06 | 0.08 | 12.68 | .82*** |
| 적극적 대처 | | | | |
| 적극 꾸러미 1 | 1.00 | | | .89*** |
| 적극 꾸러미 2 | 0.61 | 0.06 | 9.80 | .67*** |
| 적극 꾸러미 3 | 0.56 | 0.06 | 9.53 | .66*** |
| 소극적 대처 | | | | |
| 소극 꾸러미 1 | 1.00 | | | .60*** |
| 소극 꾸러미 2 | 1.15 | 0.16 | 7.30 | .75*** |
| 소극 꾸러미 3 | 0.66 | 0.10 | 6.62 | .59*** |
| 심리적 고통 | | | | |
| 우울 | 1.00 | | | .88*** |
| 불안 | 1.08 | 0.10 | 11.33 | .83*** |

주. N = 270.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8, N = 270) = 256.48, p < .001$; CFI = .96; TLI = .94; RMSEA = .056(90% CI = .046-.067). 한편,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서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직접 경로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부 = .09, $p > .05$; 모 = .05, $p > .05$),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부모양육행동에서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두 개의 직접경로를 0으로 제약을 가한 완전매개모형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우선, 완전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0, N = 270) = 258.92,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56(90% CI = .045-.067).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χ^2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elta\chi^2(2, N = 270) = 2.44, p > .25$. 따라서, 경로의 수가 적은 모형과 많은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므로, 경로수가 적은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론지었고,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해서 간접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토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들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최종 매개모형의 모수 추정치

4.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완전매개모형의 간접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활용하였다. MacKinnon 등(2002)은 LISREL program

등에서 보고되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가 부정확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에 Shrout와 Bolger (2002)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제안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통계 추정치의 유의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Efron & Tibshirani, 1993),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대칭적인 신뢰구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분포 가정을 우회하면서도 통계적 유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비대칭적인 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간접효과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을 진행하기 위해 원 자료(N = 270)에서 무선 표집으로 10,000개의 자료 표본을 생성하여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다. 모든 직간접효과의 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두 개의 경로(모양육행동→자아존중감, 적극적 대처→심리적 고통)를 제외한 모든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각각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 고통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극적 대처는 심리적 고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있어서는 세 개의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양육행동→자아존중감→적극적 대처, 부양육행동→자아존중감→소극적 대처, 부양육행동→자아존중감→스트레스대처→심리적 고통).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심리적 고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부트스트랩 분석

| 독립변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 β | B | SE | 95% 신뢰구간 (하위, 상위) | |
|--------|---------|---------|-------|-------|------|----------------------|--------------|
| 모양육태도→ | | 자아존중감 | .16 | .04 | .02 | -.014, .336 | |
| 부양육태도→ | | 자아존중감 | .27 | .05 | .02 | .104, .449 | |
| 자아존중감→ | | 적극적대처 | .34 | .55 | .12 | .216, .462 | |
| 자아존중감→ | | 소극적대처 | .17 | .15 | .07 | .021, .334 | |
| 자아존중감→ | | 심리적고통 | -.65 | -2.05 | .24 | -.744, -.551 | |
| 적극적대처→ | | 심리적고통 | -.01 | -.03 | .14 | -.127, .107 | |
| 소극적대처→ | | 심리적고통 | .19 | .68 | .28 | .058, .307 | |
| 모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적극적대처 | .06 | .02 | .04 | -.005, .126 | |
| 모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소극적대처 | .03 | .01 | .03 | -.004, .077 | |
| 부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적극적대처 | .09 | .03 | .04 | .031, .173 | |
| 부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소극적대처 | .05 | .01 | .03 | .003, .116 | |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대처→ | 심리적고통 | .03 | .09 | .10 | -.018, .082 | |
| 모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대처→ | 심리적고통 | -.10 | -.07 | .07 | -.213, .009 |
| 부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대처→ | 심리적고통 | -.17 | -.10 | .07 | -.282, -.065 |

IV. 논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고통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비록 선행연구들에서 변인간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바 있지만, 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심리적 고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높고, 심리적 고통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매개변수 및 종수변수에 직간접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보다 대학생들의 자율성(Schultheiss & Blustein, 1994), 심리적 독립 및 대학생활 적응(Mattanah et al., 2004), 그리고 대처능력(Brack et al., 1993)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상치된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심리적 유대가 명확한 자아개념 형성 및 진로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Tokar 등(2003)의 연구결과,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과보호와 배려가 정서적 고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Overbeek 등(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비록 본 연구결과가 Overbeek 등(2003)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닌 중요성 및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다소 의외라 여겨진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고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핀 연구방법 때문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따로 측정할 경우 한 부모의 영향력이 다른 부모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에 강한 상관($r = .74$)이 존재할 경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닌 원래의 영향력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심리적 고통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착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적응의 연속성'(continuity of adaptation)(e. g., Sroufe & Waters, 1977)과 상치된다. 이 개념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애착패턴은 변형되지 않고 이후의 경험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Sroufe, Carlson, Levy, Egeland, 1999). 물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애착개념의 안정성에 대해 명백한 추론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적 고통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간접적인 영향 또한 예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애착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적작동모델이 대학생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Rice(1990)가 행한 메타분석에서도,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와는 달리 후기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애착과 정서적 적응 간에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 대학생들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 사랑 및 성적 경험을 실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로맨틱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실험하는 것에 열성적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그러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 및 배려에 대한 욕구와 행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이렇듯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새로운 애착경험을 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Engels, Finkenauer, Meeus, & Dekovic, 2001). 즉,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에 변화가 오고, 이전만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대학생들의 정서적 기능 및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동성 또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착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애착유형을 측정하여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인애착유형은 대인행동에 대한 특징적인 패턴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인지적 모델을 반영한다(Bowlby, 1982). 비록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애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성인으로서 맺게 되는 로맨틱한 관계와 친구 및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artholomew & Thompson, 1995). 이것은 부모애착이 측정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애착패턴을 측정하는 성인애착유형 척도를 후속연구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아존중감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미례, 2007; 김현정, 손정락, 2006; 조선영 외, 2005; 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Corning, 2002).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행동 및 애착관계가 정신건강 및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e. g., Roberts, Godlib, & Kassel, 1996).

반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고,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문양호, 김완일, 2006;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Dempsey, 2002)와 일치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거나, 적극적 대처가 심리적 고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대처방식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은희, 2004; Lee & Liu, 2001)과 상치되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와 관련이 있다. 검사지의 측정학적 한계(예,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뿐만 아니라 대처방식을 구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대처방식을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대처방식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포괄하는 과정에서 각 하위요소의 독특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측정적 특성이 보다 양호한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요소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것이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심리적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패턴을 형성하려는 노력 또한 상담과정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부모와 함께 진행되는 가족상담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지니는 영향력을 주지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관계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담자 및 부모에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을 상담할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보다 더 생산적인 접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는 극단적이고 평가적인 자기진술들을 확인하여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

리적인 진술로 대체하는 인지적 접근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대처전략에 대한 교육 또한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서지향적이고 회피적인 소극적 대처가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매개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방법론상에 제한점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검사지를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초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패턴을 측정하기보다는 현재 부모가 보여주고 있는 관계 패턴을 측정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되고 결국 심리적 고통 수준을 낮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부모와의 관계 또는 관계상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횡단연구이면서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심리적 고통 간에 일방향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심리적 고통이 적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이는 결국 부모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종단적 연구, 즉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심리적 고통을 순차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초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확신있게 추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문제 또한, 연구참여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보고 또는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을 통해 자아존중감, 대처 및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학력, 연령, 경제수준 등이 상이한 모집단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2). 부모의 초기 권위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9(3), 37-55.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미례 (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 김영숙 (199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3(1), 69-98.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김희수 (2000).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 남순현, 임소영 (2006). 부모의 언어학대와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53-967.
- 문양호, 김완일 (2006).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분석 및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85-501.
- 민경환, 박금주, 박세란 (2004). 2004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요약. *學生研究*, 38(1), 108-123.
- 박경리, 김경연 (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상학, 조용래 (1996).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366-377.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11(1), 1-15.
- 이기학, 이경아, 유나현 (2007). 2006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3, 28-62.
- 이수현 (2007). 2006년 재학생 실태조사. *대학생활상담연구*, 7, 42-106.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이훈구 (1986). 한국교고생의 심리적 성숙에 관한 연구: Y大學 新入生에 관한 調査分析. *人科文科學*, 56, 145-164.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격자기

- 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12.
-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3), 433-439.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bona, C., & Power, T. G. (2003).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40-51.
- Arbuckle, J. L. (2003). *Amos (Version 5.0)* [Computer software]. Chicago, Ill: SmallWaters.
- Arnstein, R. (1980). The student, the family, the universi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Adolescent Psychiatry*, 8, 160-172.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Thompson, J. M. (1995).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23, 484-490.
- Blustein, D., Walbridge, M., Friedlander, M., & Palladino, D.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ack, G., Gay, M., & Matheny, K. (199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coping resources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12-21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ssidy, C., O'Connor, R. C., Howe, C.,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51, 329-339.
- Cavell, T., Jones, D., Runyan, R. D., Constantin-Page, L., & Velasquez, J. (1993). Perceptions of attachmen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204-212.
- Corn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17-126.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Dempsey, M. (2002). Negative coping as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outcomes: Inner-city African American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 102-109.
- Derogatis, L. R. (1983).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for the SCL-90-R*. Tow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Efron, B., & Tibshirani, R. (1993).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New York: Chapman & Hall/CRC.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Meeus, W., & Dekovic, M. (2001).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s' emotional adjustment: The role of interpersonal tasks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28-439.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 Fischer, A. R., & Good, G. E. (2004). Women's feminist consciousness,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437-446.
- Fischer, A. R., & Shaw, C. M. (1999). African American's mental health and perceptions of racist discrimin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acial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95-407.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79-700.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in perception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rant, K. E., Koon, J. F., Davis, T. H., Roache, N. A., Poindexter, L. M., & Armstrong, M. L.

- (2000).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exposed to str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388-417.
- Greenberger, E., Chen, C., Dmitrieva, J., & Farruggia, S. P. (2003). Item wording and dimensional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Do they mat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241-1254.
- Grotevant, H. D. (1989). Child development within the family context.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34 - 51). San Francisco: Jossey-Bass.
- Hammer, T. J., & Turner, P. H. (1990).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Hoffman, M. A., Uship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Holmbeck, G., Paikoff, R., & Brooks-Gunn, J. (1995). Parenting adolescent.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91-118). Mahwah, NJ: Erlbaum.
- Kenny, M. E. (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 The value and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39-46.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23*, 433-451.
- Laible, D., & Thompson, R. (2000). Attachment and self-organization. In M. Lewis & I. Granic (Eds.), *Emotion, development, and self-organization: Dynamic systems approaches to emotional development* (pp. 298-32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ose, S., & Boivin, M.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during the high school-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 Laursen, B., & Williams, V. A. (1997). Perceptions of interdependence and closeness in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In S. Shulman & W. A. Collins (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21). San Francisco: Jossey-Bass.
- Lazarus, R. S. (1990). Theory-based stress management. *Psychological Inquiry, 1*, 3-1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Croy, C. (1988). Parent-adolescence intimacy: Impact on adolescent functioning. *Adolescence*, 23, 137-147.
- Lee, R. M. & Liu, H. T. T. (2001). Coping with intergenerational family conflict: Comparison of Asian American, Hispanic,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10-419.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rcus, R. R., & Betzer, P. D. S. (1996). Attachment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6, 229-248.
- Marsh, H. W. (1993). Multitrait-multimethod analyses: Inferring each trait/method combination with multiple indicator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6, 49-81.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 269-298.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13-225.
- Newman, B. M. & Newman, P. 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a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7.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M. E.,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 Parkes, C. M., & Stevenson-Hinde, J. (Eds.). (1982).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ur*. London: Tavistock.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463 - 47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Roper, B. L., Ben-Porath, Y. s., & Butcher, J. N. (1995). Comparability and validity of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with the MMPI-2.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58-37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roufe, L. A. (2002). From infant attachment to promotion of adolescent autonomy: Prospective, longitudinal data on the role of parents in development. In J. Borkowski & S. Landesman (Eds.),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 Influences on academic, intellectu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187-202). Mahwah, NJ: Erlbaum.
- Sroufe, L. A., Carlson, E. A., Levy, A. K., & Egeland, B. (1999).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13.
- Sroufe, L. A., & Waters, E. (199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Feldman &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 Ullman, J. B. (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B. G. Tabachnick & L. S. Fidell,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pp. 709-811). New York: HarperCollins.

Vivona, J. (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16-329.

Wylie, R. C. (1989). *Measure of self-concept*.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논문접수 2008년 11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12월 1일 / 2차 심사 2008년 12월 10일 게재승인 2008년 12월 17일

* 강제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함. 현재 루터대학교 상담연구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임.

* e-mail: jae4640@hanmail.net

* 서영석: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상담교육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심리학: 교육실제를 보는 창,"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등이 있다.

* e-mail: seox0004@yonsei.ac.kr

Abstract

Perceived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Jaehee Kang* · Young Seok Seo**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link between perceived positive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ata from 27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indicated that the link between positive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Positive paternal parenting contributed to self-esteem, which, in turn, influenced coping strategies and eventually psychological distress. The strongest relation was observed for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sychological distress. Implications for attachment theory and counseling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college students, self-esteem, stress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 Konkuk University, Ph.D. student

**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